

#### CONTENS

- 담임목사 칼럼 〈Ⅷ. 부족함의 아류들을 조심해라(2)〉
- 위로가 있는 힐링콘서트 〈위로 at Home〉 p.3
- p.4-5 강청 아카데미 / 강청 특새 챌린지 & 드라이브 쓰루
- 성금요일 애찬식&세족식
- 새가족간증 / 간증인터뷰
- p.9 국내외 선교편지
- 쓰임 수상자 글
- p.11 역대하 개론2 / 신앙의 베이직
- p.12

























## Ⅷ. 부족함의 아류들을 조심해라(2)

#### 삼등은 괜찮지만, 삼류는 안 된다.

"삼등은 괜찮지만, 삼류는 안 된다." 정호승 시인이 쓴 "나에게 용기를 준 한마디"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삼등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삼류로 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삼류는 삼등의 아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삼등으로 사는 것은 괜찮아도 삼류로 살아가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

미국의 최고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하여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고등학교 성적으로 일등을 뽑지 않는다. 대신 일 류를 뽑는다. 그래서, 같은 반에서 일등 하는 학생이 하버 드 대학에 떨어졌는데 삼등 하는 학생은 합격하는 경우들 이 흔하게 일어난다.

성적은 일등인데 삶은 삼류인 학생들이 있다. 어릴 적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공부 빼고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아이들이 있다. 성적은 최고의 점수를 가지고 있지만, 그 외에 아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공부 기계들에 학교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공부는 비록 삼등 수준이지만 삶이 일류인 학생들에게 큰 관심을 가진다. 사회 봉사활동, 운동, 어릴 적부터 지속해서 준비해 온 자기만의 독특한 취미와 관심사 등이 이 학생을 일류로 만든 것이다.

그렇다. 일등이 안 되어도 괜찮다. 삼등도 얼마든지 일류의 삶을 살 수 있다.

배우 장동건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인기드라마〈신사의 품격〉을 빗대어 인기몰이를 하는 개그 프로 중에〈거지의 품격〉이 있었다.

그 프로의 주인공은 일명 "꽃거지"라고 한다. 허름한 코트를 열어젖히면 양쪽으로 꽃이 가득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거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거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자면 삼등에 속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 사람이 삼등 인생인지는 몰라도 삼류인생은 아니다. 그의 삶 자체는 어떤 일류보다도 나은 모습이다. 거지임에도 가슴에는 꽃을 품고 살아가는 일명 꽃거지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고, 자존감 또한 하늘을 찌른다. 구걸해도 비굴하게 구하지 않고, "궁금하면 오백 원!"을 당당하게 외친다.

장동건같이 일등이 일류로 사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지만, 꽃거지처럼 삼등이 일류로 사는 방법도 있다. 하나님은 우 리에게 "담대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비굴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 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16:33)"

오늘 우리의 삶이 삼등 같아도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



최병락 담임목사

기셨다. 삼등 같은 인생이 일류의 삶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모든 삼등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목회했던 달라스 지역과 세미한 교회는 등수로 말하자면 삼등이다. 한국의 목회에 비하면 이민 목회는 이등이다. 종일 걸어 다녀도 한국사람 한 명 만나기 힘든 달라스는 백만 명 이상의 한인들이 사는 로스앤젤레스에 비하면 다시 삼등이 된다. 한국보다 이등, LA보다 삼등. 달라스는 삼등 도시이고 세미한 교회는 자연스럽게 삼등 교회였다. 하지만, 절대로 삼류는 아니다. 어디에 내어놓아도 나와 세미한 성도들은 일류 목회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두 종류가 있다고 한다. 대형교회와 대 형교회가 되고 싶어 하는 교회들.

모두 최고를 지향하고 있다.

교회가 작으면 자신을 삼류로 생각한다. 아니, 많은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성도의 숫자가 적고, 건물이 작아서 삼등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모든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삼류는 아님을 알아야 한다. 거 지도 일류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보 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이 일류로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삼 류 갈릴리에서 일류로 사셨던 예수님처럼.

### 겸손은 괜찮지만 열등감은 안 된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면 겸손이 되고, 남을 보면 열등감에 빠진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전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돼 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전3:11)"

그렇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렇기 때 문에 세상의 모든 것은 아름답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다른 아름다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을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와 나는 다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모두 다른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다.

요즈음 자주 듣는 말 중에 "다름(Difference)"은 "잘못됨 (Wrong)"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다름을 잘못으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고 평생 남을 보고 부러워하며 살아야 한다. 또한 남 같지 않은 나를 보면서 열등감의 노예로 살게 된다.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해보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른 아름다움을 지닌 사람으로 지으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한 가지 사실이 있다. 그것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물론 일차적인 의미로 십 대 때의 아름다움이 따로 있고, 중년의 아름다움이 있고, 노년의 아름다움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사람마다 아름다움의 때가 다 다르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10대에 아름다움이 절정에 이르는 사람이었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날이 20대인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이가 많아 노년이 되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아름다움의 때가 다르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자기의 때를 잠잠히 기다릴 수 있다.

같은 친구와 동료가 아름다움의 자태를 드러낼 때 시기하며 나의 초라함에 함몰될 이유가 없는 것은 나의 때는 아직오지 않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었다. The best days is yet to come.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아름다운날을 준비하고 계심을 기억하기 바란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 하고 어깨를 펴야 한다.

최병락. 『부족함』. 두란노. 2015



# "쉼을 얻으리라" 위로가 있는 힐링콘서트 〈위로 at Home〉 에필로그







지난 1월,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뒤덮으며 대한민국의 일상은 일시 정지되었다. 붐비던 거리는 한산해졌고,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화 되었으며 이로 인해 모이는 예배가 불가해지자 교회마다 예배를 온라인예배로 전환하여 드리는 패러다임의 전환도 있었다. 지속되는 상황에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성전의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등에 직면한 성도들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을 격려하고 함께 도고 기도 하고자 힐링콘서트 〈위로 at Home〉을 기획하였고, 4월 17일 금요성령집회 시간인 오후 9시부터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 되었다.

음악위원회의 기획으로 진행된 〈위로 at Home〉콘서트는 많은 도움의 손길로 탄생할 수 있었다. 찬양을 편곡하고 은혜로운 연주로 함께한 하우워십, 찬양사역자 리민, 임성규, 박철순, 김지혜 그리고 김수용 목사님과 홍지승 목사님의 은혜로운 찬양, 따스한 느낌의 조명과 심플한 무대 세팅 가운데 감각적인 카메라 무빙, 진행으로, 대본으로, 세팅 등으로 참여한 많은 사역자와 봉사자들의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성도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다가가게 하였다.

콘서트는 환우를 위한 기도,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한 기도로 총 세 파트로 구성하여 각 파트마다 실제 우리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의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위로의 찬양을 함께 부르며 최병락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맺음으로 하나님 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가 전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쉼을 얻으리라〉라는 제목으로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해주시면서 응체는 대해졌다

최병락 담임목사님께서는 십자가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지고 가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마치 길들여진 자처럼 우리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쉼〉이라고 전해주시며, 우리 가 멍에를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묵묵히 이 어려운 시 기를 멋지게 이겨내기를 권면하셨다. 메시지 끝에는 담임목사님의 요청으로 나무엔의 〈쉼〉이라는 찬양을 홍지승 목사님이 불러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더해주었다.

위로의 취지로 기획된 이번 콘서트가 많은 성도들에게 진정한 힐링의 시간이 되었길 소망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해본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메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 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

| 음악위 담당 이현아전도사 |

# 강청은 소명이 알고 싶어서

 강 청 은

 소명이

 알 ※ 고

 싶어서

4/26 SUN PM 5:00









강청은 지난 4월 26일 소심청년(소명을 마음에 품은 청년들의 이야기)의 저자이자, 임팩트 스퀘어의 대표이신 도현명 이사님을 모시고 "강청은 소명이 알고 싶어서"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과 관심거리라고 한다면, 직장과 연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고민들을 어떻게 도와주며 나아가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 소명이라는 주제로 강청 연합수련회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발병으로 인해 모든 오프라인의 모임들이 중단되며 계획했던 수련회 또한 잠정 연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명의 삶을 살아내기를 멈출 수 없기에 온라인으로나마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 '소명이란!'이라는 주제로 많은 청년들이 흔히 인식하고 있는 소명의 개념에 대해 바로 잡아주며, 소명을 발견하고 따라가는 삶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부 순서로는 도현명 강사님과 강청의 이근도, 권규택 두 분의 목사님들과 함께학교나 직장에서 소명의 삶을 살아갈 때 생겨나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실시간 Q&A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나의 소명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강청의 많은 청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 청년위 담당 이영광전도사 |

##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 <sup>리고까?"</sup>

한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가요의 노랫말입니다. 인생을 길에 비유하여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끝없는 고민과 고뇌를 담은 이 메시지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단순할 것 같지만 답하기 쉽지 않은 이 질문에 대해 시원한 답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강의가 강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직업과 소명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직업은 바뀔 수 있지만,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직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무엇을 위해살고 '어떤 일들에 중점을 두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다."라고 소명을 정의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소명을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오스기니스의 [소명]의 내용 중 소명을 사냥개로 비유하여 "내가 소명을 찾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소명은 냄새를 맡고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

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말로 답변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소명을 따라 살면 성공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소명의 삶은 남을 이기고 승리하는 전쟁 영화가 아니라 아름다운 장면과 각자의 역할이 있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사랑이 주제인 멜로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 세상의 성공과는 다른 모습일수도 있다."라는 답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강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준비과정에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실시간 채팅으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질문과 답변이 강의와 잘 어우러져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 딱 맞는 귀한 강사님을 보내주셔서 강청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은혜의 시간이었음을 확신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소명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는 강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임성규 성도 |

# 강청 아카데미

강청은 3.8(주일) 강청 아카데미를 개강하여 4.12(주일)까지 6주간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청의 4명의 교역자들이 '마가복음', '쉬운성경연구방법론', '구약개론', '예배와 찬양'이라는 각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청의 많은 청년들이 성경공부와 교육을 통해 말씀에 대해 더 알아가며 자라게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강청 아카데미 LIV







####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코로나19라는 우리가 지금껏 겪어 보지 못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 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 할 수 없는 강청아카데미가 온라인 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저 어렵게만 느껴졌던, 특히 구약의 성경들이 6주간의 구약개 론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성경이 더 읽고 싶어지고 궁금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냥 '사랑해요'라고 하기 보다는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된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6주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 아쉽습니다. 배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궁금한 것이 더 많아지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구약개론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 강청 아카데미 구약개론(신하은)



#### 어엿한 제자로 성장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모임이 중단되면서 말씀에 갈급해가는 시 점에, 강청아카데미가 지연되지 않 고 온라인으로 개강한다는 소식에 매우 기뻤습니다. 특히 성경의 모

든 책 중에서도 사복음서를 사랑하는 저는 강청아카데미의 마가 복음 강의가 매우 기대됐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저자 마가에 대한 것이 었습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의 선교여행을 중도에 포기하기도 했던, '부잣집 도련님'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함 께 오래 사역을 하면서 마가는 어느덧 사복음서의 저자 중 한 명으로, 예수님의 어엿한 제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를 보면서 부족한 나 또한 예수님께서 성장시키고 계심을 다시 한 번 기쁘게 믿게 됩니다. 아울러 나도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키워가야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영상강의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을 이근도 목사님과 다른 모든 목사님, 전도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으로 만나든 영상으로 만나든 언제나 좋은 복음,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 강청 아카데미 마가복음(전소진)



## 나에게 가장 필요한 훈련

찬양팀을 몇년간 했지만, 이렇게 교역자분들께 강의를 듣게 된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훈련학교 에 항상 찬양 강의가 있었지만 간 사님들을 통해 진행되었기도 했고,

또한 프리워십 모임 시간에 짧게 짧게 배우기도 했기 때문에 특별히 훈련학교 때에 찬양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강청 아카데미를 들으며 그동안 그냥 대충 알았던 것들의 핵심이 무엇인지 딱 정리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특별히 찬양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이었고, 익숙해져만 가는 찬양팀 생활 가운데 내가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훈련"이었습니다. 교회 밖의 삶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훈련, 기능예술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기능적인 훈련을 하여 더욱 준비된 예배자가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예배자로, 찬양하는 사람으로 더욱 나 자신을 다독이고 훈련시켜야겠습니다!

- 강청 아카데미 예배와 찬양(권예슬)



### 고민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신청 후 기대하는 마음으로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분명 쉬운 성경연구 방법론인데 저에게 너무나 어렵게 느껴진 첫 강의, 저 혼자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러워 질문도 못했던 첫 강의가 지나갔습니

다. 매주 강의마다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쉽다고 이야기해주시던 권규택 목사님, 목사님의 칭찬과 격려는 그 시간 강의는 어렵다 고 느낄지라도 끝날 때는 나도 성경이 쉽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5주차 수업부터 성경과 강의 가 너무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경험해보니 그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스스로 다른 성경구절에 배운 것을 적용해보는 시간도 가지고 좋은 묵상의 훈련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묵상을 할 때 성경이 어렵게 느껴진다. 묵상을 할 때 이해하기가 힘들다, 또는 묵상시간이 힘들게만 느껴진다.'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한 번 아니 두 번 강의를 들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다 함께 은혜 받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시간을 사모하는 강청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 강청 아카데미 쉬운성경연구방법론(유아현)

## 강청 아카데미 한줄평

#### [마가복음]

김세진: 마침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설교와 연결되어서 최병락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릴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에 대해 예전보다 진지하게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수영:** 이번 강청아카데미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간증하게 되길 바랍니다.

**김연수:** 집중하기 힘들 때도 있었지만 꿀이 되는 말씀 주셔서 듣고 나면 힘을 얻는 기분이었습니다!

정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자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마가복음 강의를 듣게 되면서 회복하고 도움도 많이 되었습니다.

이규상: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움이 많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는 청년들의 열정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경공부에 대한 끊임없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며, 조속히 함께 모여 공부하고 싶습니다.

## [쉬운성경연구방법]

**조성희:** 딱딱한 성경이라고요? 조금만 견디고 목사님께서 하자는대로만 따라 하시면 성경이 달리 보일거에요!

**견재현:** 처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숙제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요일별로 내주신 숙제를 매일 매일 하니 바르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을 알게 되어 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김현:**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가까워짐으로 풍성 해지는 삶을 기대하게 됩니다.

서한술: 평소 성경을 읽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 어렵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번 강의로 성경을 보는 방법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저 읽는 것에 끝나지 않고 분석하고, 하나님을 찾고, 적용까지 하는 과정이 쉽진 않지만배운 것들을 꾸준히 연습해야겠다.

정성연: 성경은 쉽지만 내가 어리석어 방법을 몰랐다! 깊게 읽는 연습을 더 해서 하나님을 딥(Deep)하게 만나야겠다.

**박푸름:** 어렵다는 핑계로 멀리했던 성경을 가까이하게 되었고, 부족한 제가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구약개론]

**윤은혜:** 율법의 완성이신 하나님과 관계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국:** 강청아카데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회복을 위해 얼마나 큰 사랑을 주셨는지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 [예배와 찬양]

박재서: 찬양하는 자만이 아닌 예배자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고, 찬양팀의 마음과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하 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하겠다.

**박가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닌 예배자. 우리 자체, 삶 자체.

**최유나:** 보여지는 예배자가 아닌 나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예배가 되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자.

# 강청 특새 챌린지 & 드라이브 쓰루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게 된 강청은 함께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의 여정을 잘 달려가자는 의미에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강청 특새 챌린지'를 진행하였습니다.

특벽새벽기도회 기간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요약해서 보내준 청년들에게 직접 찾아가 드라이브 쓰루로 선물을 전해주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여정을 달려가고 또 서로 지치지 않고 잘 달려가고 있음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운 청년들의 얼굴과 특새를 통해 받은 말씀 요약을 나눕니다.



# 잊을 수 없는 예배의 감격 (성금요일 애찬식&세족식)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지난 성금요일(4/10) 예배는 가정 애찬식과 세족식으로 진행하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찬양을 시작으로 담임 목사님의 집례아래 도상균 집사 가정이 성금요 예배에 봉사자로 참여해 애찬식과 세족식을 진행하며 가정예배의 샘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에서도 함께 애찬식과 세족식에 동참하여 잊을 수 없는 특별한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을 간증으로 나눠주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임재의 감격을 함께 누려보겠습니다.



## 가정이 하나됨을 느낍니다.

성금요일에 애찬식과 세족식이라는 특별한 순서에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의 모델로서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특별한 예배와 순서를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먼저 교회에서 애쓰시고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수고를 보며, 모든 예배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정말 애쓰시고 준비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시작 전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처음 경험해보는 가정 애찬식과 세족식을 통해 저희 가정이 하나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행사가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에 교회에서 모두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여러분 모두 보고 싶습니다.







## 엄마의 사명은 올바르게 전하 는 것입니다.

어린 손녀들과 애찬식과 세족식을 하시겠다며 포도주스와 카스 테라 빵을 사오신 친정 엄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라인 예배 로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지만 난생 처음 아이들과 엄마와 집에서 드려지는 성찬과 세족식은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어릴적 엄마의 믿음은 교회 나가시긴 했지만 그렇게 깊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연세가 드실수록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우리 아이들에게 나에게 하지 않으셨던 신앙 교육을 몸소 실천하는 모습이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특히나 7살 첫째 하은이는 매우 행복해하는 모습에 이런 섬김을 아이들에게도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들며 감동과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었다. 정신없는 육아로 고난주간에 집중하지 못했던 나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나의 어머님을

통해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길을 열 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계셨다. 지난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보 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 예수님을 만나 생명의 삶으로 돌이키 신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정을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그 과정 가운데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우 리 가정과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지만 나는 가끔은 내가 이런 평 범한 은혜를 누리는 것조차 나에게 너무 과분한 은혜임을 고백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 썩었다며 많은 이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 이 땅에 벌어지고 있지만 내가 아는 것은 단 하나. 그렇다고 해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일반계시인 성경을 통해 날마다 확증해나가며 아이들에게 온전히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엄마인 나의 사명인 것을 오늘도 다짐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두돌쟁이 하영이의 눈망울에 소망을 담아 기도한다.

이은정 집사





## 진귀한 예배의 풍경을 봅니다.

우리는 평범한 삶에 싫증을 느낄 때면 여행을 떠나거나 일탈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늘 그 여행과 일탈의 끝에서는 평범한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것 같습니다. 제 평생에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성전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면서 삶에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인 최지영 집사는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것 같다. 늘 봉사와 연령별 예배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했는데 지금은 거실에서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며 진귀한 풍경에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머니 오순정 권사님은 평생을 함께하던 성전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시기도 합니다. 아들 재욱이와 딸 소람이가 그 옆에서 함께하는 예배가 아직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웃음을 보입니다.

이 와중에 더 진귀한 풍경은 성금요일 애찬식과 세족식에서 일어

났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찍을 때 아내의 발을 만져본 이후로 거의 처음으로 아내의 발을 만지고, 46년 만에 어머니의 발을 만져봤습 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 매일같이 생활했지만 발을 씻긴다 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는 왠지 모를 어색함과 간 지러움을 가족 모두가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색함과 간지러움의 껍질이 곧 벗겨지고 그 속에 있는 감동과 사랑을 보게 되었을 때에 '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늘 함께이기에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가족이 한 번의 터치로 새로운 관계의 전환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과의 관계의 전환을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늘 함께하기에 몰랐던 애틋함의 감정, 그 감추어진 마음들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인도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뒤돌아보면 반드시이 날을 추억하며 주신 은혜를 다시금 새겨볼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안윤환 집사





## 예배의 주최자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마치는 금요성령집회를 통해 평소와 같이 교회에서 했더라면 하기가 힘들었을 세족식을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진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가장이 주최자가 되어 가정에서 진행한 성찬식을 통해 그간 교회에서 해왔던 성찬식의 느낌과는 달리 좀 더 깊게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 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간절함을 느끼는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성령집회를 집에 서 온라인예배로 아이들과 함께 드리며 가족관계가 회복되어짐을 느꼈습니다.

그간 가정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절이나 기일에 드리는 것만 익숙하던 저로서는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매주 드렸던 구역예배를 떠올릴 수 있었고, 그 어색했던 가정예배가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곁에 항상 계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심을 알았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닮아 가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찬현 집사



## 가족 모두의 고백이 있는 예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시간입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 와중에 화상 예배 또한 특별하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성령집회에는 그 은혜가 더 컸습니다.

특히 담임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VR을 보는 것 같이 생생하여 아이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평생 자랑은 주님의 십자가임을 자녀들과 함께 되새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족식을 하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기시는 그 마음을 조금 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주기만 바랬지, 섬긴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귀한 자 녀들을 잘 섬기고, 소통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 들이 처음으로 발을 씻겨주니 기분도 좋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세족식을 하면서 아내 성수희 집사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녀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슬프게 한 적도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의 발을 씻길 때 슬프게 했던 모습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고 합니다.

아들 민재의 애찬식과 세족식이 너무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며 "앞으로 예수님처럼 다른 이를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고백과 세족식하며 "십자가 안에서 가족이 하나되는 것을 느꼈다."는 딸 하민이의 고백을 들으며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의 은 혜를 누린 예배가 되어 행복했습니다.

엄용석 집사



## 결혼 기념일에 받은 선물

설롬! 성찬식과 세족식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기다 렸습니다. 성령집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설레는 마 음으로 바뀌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왠지 모를 가슴 벅차오름이 있었습니다. 27주년 결혼 기념일날 가정에서 행해지는 애 찬식과 세족식이라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특별히 허락하신 선물이라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의 삶을 돌아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광야의 길로, 한없는 외로움 속에서 인내하며 주님께 부르짖던 날들이 주마등 처럼 지나갔습니다. 가정의 기업으로 세 자녀를 허락하셔서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리며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던 하나님 아버지 의 마음이 절실히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녀의 발을 씻기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마음에 비할 길 없지만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불교 집안에서 특별히 저를 택하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믿음의 배우자 만나 믿음의 세 자녀 허락하셔서 믿음의 가정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찬식 세족식을 통해 특별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며 계획하시고 실행하신 담임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홍영 집사





#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강중침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년 7월 강중침의 새가족이 된 이경민 성도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강중침에 와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 6월 초 건강검진 때 갑상선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소견서를 받아 10년 전 수술(여포암)했던 강남세브란스를 다시 찾았고 진료 결과, 모양이 좋지 않은 종양이 또 발견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 후인 10월에 다시 조직 검사를 하고 같은 결과면 수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초기에 발견되어 목 절제가 아닌 겨드랑이 부근을 내시경으로 수술했는데 이번에는 목 절제로 수술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은 저는 눈물로 매일 기도하며 지냈습니다.

당시 저는 아나운서 지망생들을 가르치며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기에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아침저녁 출근 전 퇴근 후 시간만 나면 기도실에 와서 "하나님, 이 딸의 눈물 보고 계시지요.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이 딸은 지금 너무나 간절합니다. 저의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성전에 엎드린 저를 돌아만 봐주셔도 저는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매일 간절히 기도하던 중 담임목사님께서 금요성령집회 후 안수기도 해주신다는 말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번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유치부부터 30여 년 다닌 모교회를 떠나 강중침 새가족이 되었기에 강

대상 앞으로 나가는 발걸음이 낯설었습니다. '저 자매는 뭐가 그리 절박한 사연이 있을까?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도하러 오는 나를 이 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요동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예수 님의 이름으로 나을 줄 믿고 매번 담임목사님께 머리 숙여 기도를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제 마음 속에는 잠잠히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어느날 퇴근 후 1인 기도실에서 기도하던 중 어떤 결과여도 그것은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 떼어 내야 하는 종양은 초음파나 조직검사에서도 나오질 않고, 모두 양성 정상 세포라는 의사선생님의축하 인사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기도 가운데 세미하게 물으셨던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딸아, 나를 믿느냐, 나를 신뢰하느냐?" 저는 이때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빼앗아 가는 분이 아니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언젠가 금요집회 때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지리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한 방향으로만 걸어가면 반드시 인가가 나오고, 이조차 할 힘이 없다면 그냥 주저앉아 호루라기를 있는



힘껏 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두 팔을 번쩍 들고 기도회 시간에 호루라기를 크게 불어 주셨지요. 저는 담임목사님의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딸아, 있는 힘껏 나를 불러 보거라. 내가 이 성전에 있단다. 내가 도와줄게. 나를 부르고 나에게 구해 보거라" 하는 메시지로 보였습니다. 너무 힘들어 성전에서 억 소리도 못 낼정도로 울다 지쳐 나지막하게 '주남' 부를 때 눈을 들어 보면 하나님 품에 쏙 안겨 있을 저를 보게 됩니다. 강중침 모든 가족들과 이 좋으 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 참 감사한 3월입니다.

| 이경민 성도 |



# 좋은 것을 택한 사람



| 원병숙 권사 |

여러분은 자신 모든 것이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를 설교 중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 다가 언니인 마르다의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 려 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하였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은 교 회를 위해 평생 모아온 옥합을 내어드려 좋은 편을 선택한 강중침의 마리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병숙 권사님은 올 해 88세의 나이로 한달 전 부터 요양원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드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삶 가운데 이 땅의 것을 갖고 있는 것보다 하늘의 상급이 중요하단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생각이 들고 실행하는데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기예금 통장에 있던 '씨앗'은 '성전'이라는 밭에 뿌려졌습니다.

권사님의 '씨앗'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젊은 시절 파독간호사 (어려운 시절 독일에 파견된 간호사)까지 하러 나갈 만큼 삶은 늘 녹 록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늘 자신의 삶에는 인색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아끼지 않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10여년 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도움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을 내어놓아 '건축의 씨앗'으로 심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씨앗은 헌금만이 아닙니다. 늘 '전도의 씨앗' 심길 원하셔서 전도 모임(전도대)에 수요일마다 참여하시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시던 일꾼이셨습니다. 이제 권사님은 씨를 심는 일꾼의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준비가 끝나고 주님이 부르실때에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는 칭찬 받길 원하는 강중침의 마리아원병숙 권사님. 권사님의 씨앗이 이 땅과 하늘에 가득히 열매 맺길기대합니다.

| 편집 담당 이길호전도사 |

안녕하세요~
한미경선과사에나 아크를 통해서도 이것 안성관에서 경구간의 시간을 중한 과 활봉과 성을 참각해 주신 하내성에 강사 드리고 강경실 선교회 위원화 및 제 깊은 강사를 권해드립니다.
나무 좋은 안식관에서 아들과 제가 귀찬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 강변을 산책하며 제월로 강사가 내었어요. 잘 행박했습니다. 한강 강변을 산책하며 제월로 강사가 내었어요. 잘 행박했습니다. 한강 강변을 사내주에서 나내 강사장사업. 국은 서울을 내내주에서 나내 강사장사업. 구성에 다시한번 고개쪽에 가수의 마음을 건찮니다.

# 안식관에서 온 감사 편지

안녕하세요. 한미경 선교사입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곳 안식판에서 3주간의 시간을 충전과 회복 그리고 쉼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과 강중침 선교회 위원회님께 깊은 감사를 전해드립니다. 너무 좋은 안식판에서 아들과 제가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 강변을 산책하며 저절로 감사가 나왔습니다. 참행복했습니다. 항상 성탄절 마다 좋은 선물을 보내주셔서 내내 감사했구요. 끊임없는 사랑과후원에 다시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국명환,한미경 선교사 올림

# "예수 마시 히 메라 뿌라부 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인도에서의 비자 거주 연장을 1년 더 받았습니다. 사실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비자 신청이 거절 되었는데 저희는 어제 거주 등록증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년을 이곳의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 전하라는 거룩한 명령과 기회임을 알고 다시 힘을 내어 봅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은 부활 주일 헌금을 보내 주신 교회와 개인들로 정말 많은 가정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 였습니다. 지난 약 한달 이내에 350개 이상의 가정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후원해 주신 교회와 개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역은 다음 달까지 계속 지속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실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내고 개척한 교회 사역자들은 아닌데 아주 깊은 골짜기 시골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소식이 벌써 몇 군데서 들려옵니다. 그들은 시골에서 작은 농사도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활을 하는 목

회자들입니다. 그런데 통행금지로 인하여 지난 3월부터 교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농사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사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시골의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모임을 못하니까 작은 헌금도 없고 오히려 굶주리고 있는 성도들을 도우며 자기들은 굶고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저에게 처음으로 그들을 도와 달라는 연락이 와서 기도하면서 양식을 전달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에서 생활비를 돕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얼마나 더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

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그 시골 목회자들의 사진입니다.

한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도 어느 정도 잡혀 가는 것을 볼 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에 있는 거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이번 사태로 특별기 편으로 한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 인도에 이 사태가 더 진전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회복 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11)"

인도 김바울 선교사







##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

사컨 형제가 한달 정도의 교회쉼터 생활을 정리하고 공장숙소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같은 공장 태국인 한 명이 태국으로 돌아가면 두명만 일하기로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태국항공편이 없어서 노동부에서 임시로 두 달 더 일하도록 허가를 받아서 당분간은 원룸에 세명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토요일 뺑 자매와 쒠 형제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동안 갑상선 치료를 잘 받아서 이젠 병원도 한 두번 만 가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니가 아파서 근처 치과에 가서 발치도 함께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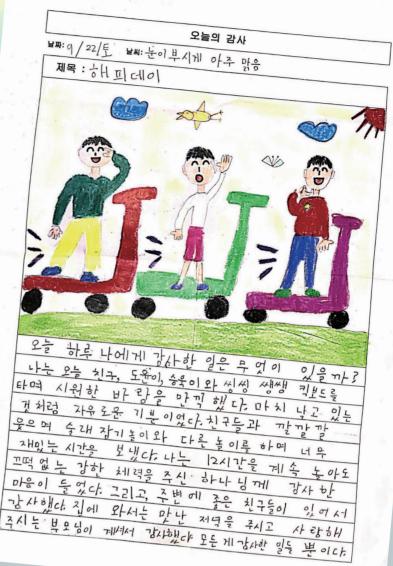
주일예배 때 예전의 출석 인원으로 조금씩 회복됨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발적으로 나오는 모습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또한 공단내 취약지역의 공장주변 태국인들을 계속 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둘째 주일(12일)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성만찬도 함께 했습니다. 예배 후 공장 전도 겸 부활절 달걀을 돌리고 왔습니다.

모든 것에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타이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힘든 시기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며 회복하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샬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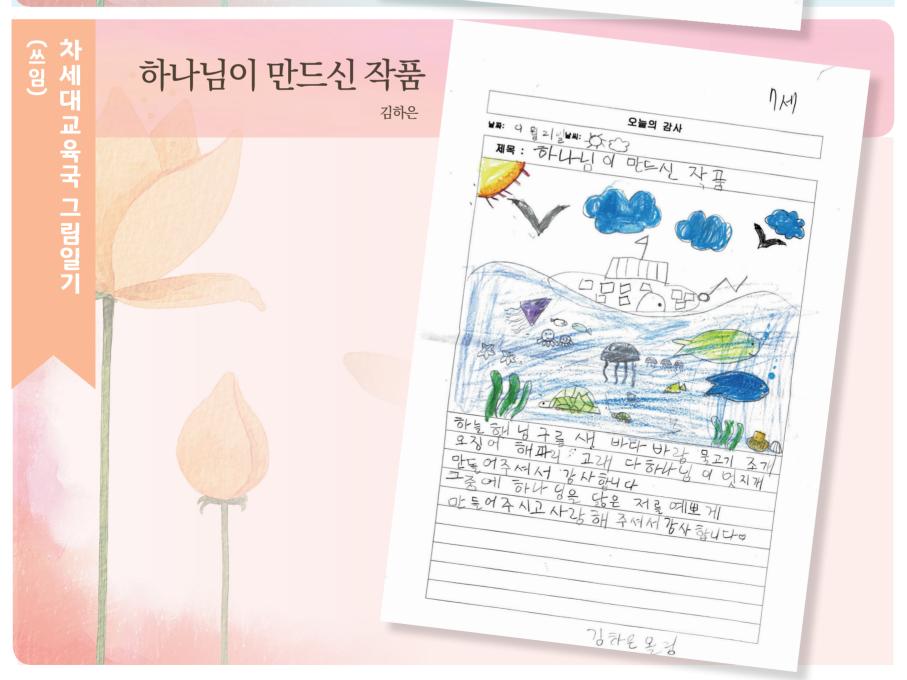


인천 타이소망 교회 남명진 목사 올림





3학년 이동현







## 역대하 개론2 (4~6장)

역대하 4~6장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에 사용되는 기구를 만들고 성전봉헌기도를 마치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I. 역대하 4장은 "성전의 각종 기구"에 관한 기록이다.

먼저는 '놋'으로 '번제단'을 만들었다. 가로, 세로가 각각 10m이고 높이는 5m나 되는 거대한 번제단이었다. 솔로몬의 번제단은 모세의 번제단보다 무려 그 용량이 50배나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것은 성도들의 사업도 커지고, 수입도 늘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커지고 헌신도 커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놋을 부어서 "바다"를 만들었다. 바다는 모세의 성막에서는 "물두멍"이라고 불렀던 것이다. 크기가 정확하게 계 시되어 있지 않으나 물두멍은 작은 것이고, 바다는 큰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용도는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기 위한 것이다. 이에 더해 솔로몬의 성전에는 금으로 만든 등대도 열 개나 만들어서 성소의 좌편에 5개, 우편에 5개를 두었다. 모세의 성막에는 금 등대는 한 개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계시도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그 빛이 증가되고, 그 내용이 뚜렷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 II. 역대하 5장은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신 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된 내용이다.

솔로몬의 성전은 즉위 4년 2월 1일(역대하 3:2)에 시작되어, 즉위 11년 8월에 완공되었으니 약 7년 6개월이 걸린 셈이다. 성전의 기구들까지 모두 완성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은과 금을모두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언약궤는 67년간 기럇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수레로 언약궤를 시온성에 모셔 오려다가 웃사가 죽고 나서 석 달을 오벨에돔의 집에 두었다. 그것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어 시온성으로 모셔 와서 다윗의 장막에 두었다. 솔로몬은 다윗왕의 실수(수레로 언약궤를 든 것)를 되풀이하지 않았다. 역대하 5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사람들의 어깨에 메어 올라갔다"고 하였다. 역사공부가 중요한 이유가 선조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다.

## Ⅲ. 대하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린 기도인데 장장 31절에 달하는 기도이다(12~42절).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바라보면서 놋으로 대를 만들어 그 위에 올라갔다. 그 대는 장광이 다섯 규빗이요, 고가 세 규빗이었다. 솔로몬이 그 대에 올라가 온 회중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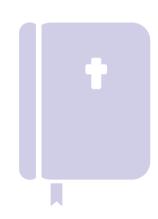
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보면 전쟁이든, 기도이든, 질병이든, 포로 가 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용이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각가지 재앙에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 결론

헌신과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 드릴 때하나님은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과 불을 내려주셨다. 오늘날은 성령님이 우리의 구름이시며 불이시다. 참된 마음으로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성령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환경과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 편집위원 윤유진 |



성경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 꿀팁!

신앙의 베이즈

## 발 (foot)

사람이나 짐승이 몸을 지탱하고 이동할 때 요긴하게 사용되는 신체 기구, 바로 발입니다. 몸의 제일 아래 위치하며 먼지와 흙이 있는 땅과 항시 접촉해 있기 때문에 쉽게 더럽혀집니다. 특히 건조하고 먼지가 많은 중근동 지방 사람들의 발은 불결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짐승 가죽을 끈으로 묶은 평민의 신발(샌들)은 발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출 후 집에 들어왔을 때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여행자나 나그네가 방문했을 때도 제일 먼저 발 씻을 물을 제공하는 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였습니다(창 18:4, 눅 7:44, 요 13:5, 딤전 5:10). 그에 더하여 발을 물로 씻고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눅 7:38). 이때 주인이나 손님의 박을 씻겨주는 일은 종 가운데서 가장 어린(미천한) 종의 몫이 었습니다(삼상 25:41).

만약 이런 일을 주인이 직접 한다면 이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없이 겸손한 행위이며, 손님의 입장에서는 과분한 최상의 대접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발을 씻겨주기 위해 신발 끈(신들메)을 푸는 일도 천한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눅 3:16, 요 1:27). 침

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은 주님의 신들메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하찮은 존재임을 고백하였습니다(막 1:7).

하지만 여행자나 방문자가 항상 이런 대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이런 친절을 보이지 않는다면 방문자는 그 발에서 먼지를 떨고 물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의 먼지를 떨다."는 말은 '결별(거절)하다', '무관하다(상관없다)'는 말과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습니다(마 10:14, 행 13:51). 이상에서 보듯이 사람들(특히 중근동 사람)의 발이나 신은 늘 깨끗치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만나거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갈 때는 항시 신을 벗고 발을 씻는 것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발에서 신을 벗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출 3:5, 수 5:15, 전 5:1, 행 7:33). 오늘날도 회교도들은 그들의 사원에 기도하려 들어갈 때신을 벗고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성경은 먼곳까지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인격 화하여 칭찬하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발, 포로에서 해방되었음을 전하는 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일컬어 "아름다운 발"이라 하였습니다(사 52:7, 롬 10:15). 또한, 발은 당시 여행객이나 순례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부릍지 않게 보살펴 주셨고(신 8:4, 29:5),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의 발이 돌에 부딪치지도(시



91:12), 미끄러지지도(시 94:18), 실족하지도 않게 지켜 주십니 다(시 121:3)

우리의 발은 어디로 항하고 있나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는 찬양가사를 떠올리며,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는 5월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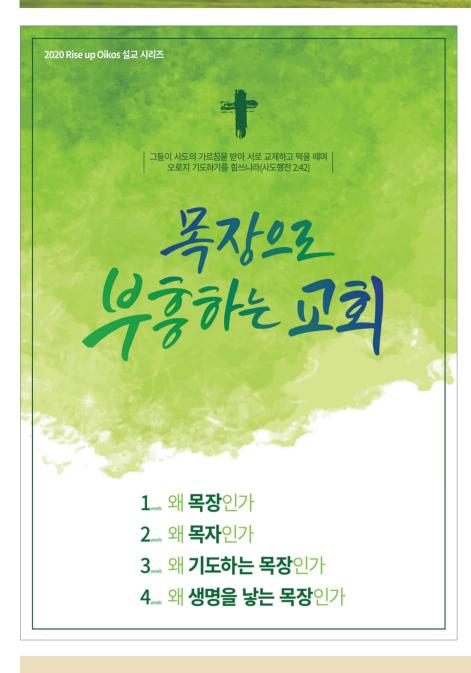
출처: 성경문화배경사전 (생명의말씀사)

| 편집위원 최준호 |

#### 강중침 WORLD 비전

- W Worshiping Church
- Oikos Church
- R Reaching Out Church
- L Life Giving Church
- **D** Discipling Church







## 성전건축을 위한 100만 기도시간 **달성현황표**

교구	387431:09
남전도회	187115:28
여전도회 회장단	33792:07
선교위원회	130684:00
청년위원회	28677:15
교회학교	8449:05
총	총 시간 780974:31

남은 시간

219025:29

• 선교위원회는 매달 1575시간씩 추가

## 주일예배·수요예배·기도회

주일	1부 예배	am	8:00	2부 예배	am	10:00
	3부 예배	pm	12:00	4부 예배	pm	2:00
	5부 예배	pm	4:00	주일 새벽예배	am	6:00
	영어 예배	pm	12:00			
수요	오전	am	10:45	저녁	pm	7:15
기도회	금요성령 집회	pm	8:30	새벽	am	5:30



### 2020년 5월 10일(제208호)